

## 대사 증후군이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손정민 · 임 원 · 이나리아 · 성은영 · 송상현 · 이동원 · 곽임수

### Prognostic Effects of Metabolic Syndrome in Patients with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Jungmin Son, Won Lim, Naria Lee, Eun Young Seong, Sang Heon Song, Dong Won Lee, Ihm Soo Kwak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배경** : 최근 대사 증후군과 만성 신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많은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대사 증후군이 만성 신질환의 발생 및 진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대사 증후군이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FSGS)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신장 조직검사를 통하여 FSGS로 진단받은 환자 중 3년 이상 경과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사 증후군이 동반된 군은 MS group 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 환자는 Control group 으로 분류하였다. 만성 신질환은 진단 당시 eGFR이 60 mL/min/1.73m<sup>2</sup>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신기능 저하는 3년내 eGFR이 진단시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하였을 때로 정의하였다.

**결과** : 총 46명의 환자 중 MS group은 16명 (40.0%), Control group은 30명 (60.0%) 이었으며 두 군간에 나이, 성별, 면역억제제 사용 여부에서 차이는 없었다. FSGS 진단 당시 MS group에서 만성 신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고 (43.8% vs. 36.7%), 혈청 크레아티닌이 높았으며 (1.5±0.9 mg/dL vs. 1.3±0.5 mg/dL), 혈청 알부민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3.0±1.2 mg/dL vs. 3.3±1.0 mg/dL)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년간의 경과 관찰 중 신기능 저하의 빈도는 MS group 에서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31.3% vs. 40.0%)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을 때 대사 증후군 유무 또는 대사증후군의 개별 진단기준과는 연관이 없었으며, 진단시 만성 신질환 유무만이 단변량 분석 (55.6% vs. 25.0%, p<0.05) 및 다변량 분석 (OR 5.0 95% CI 1.1-22.9, p=0.037)에서 신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었다.

**결론** : 대사 증후군이 동반된 FSGS 환자에서 진단 당시 만성 신질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경과 관찰 중 신기능 저하와는 연관이 없었다.

**Key Words** : 대사 증후군,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만성 신질환

Metabolic syndrome, Glomerulonephritis, Chronic kidney disease